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Korean Teachers in Japanese Universities

Park, Jong-hoo

Contract Associate Professor, Dokkyo University

parkjonghoo@naver.com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composition status of teachers in charge of Korean language subjects at universities in Japan.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20 Korean Language Education Association's survey, we analyze the composition of each type of work (full-time/part-time) and the composition of each more (Japanese More speaker/Korean More speaker/other language More speaker). First, the appointment of full-time and part-time teachers was investigated in all schools or program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by more. After that, the number of full-time and part-time teachers in the corresponding course was divided into liberal arts reinforcement and major courses, and analyzed by more.

Conclusions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ulture Forum (2005), the number of full-time teachers in Japanese universities has increased overall, and the number of teach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number of full-time teachers between Japanese native speak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n numerical terms, but the proportion of Japanese native speakers was about twice as high.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art-time teachers, the proportion of native Korean speakers was significantly higher.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teachers, full-time teachers, part-time teachers, and composition by language at Japanese universities.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2.12.312.002

Received: Nov. 10. 2022 ; Reviewed: Nov. 30. 2022 ; Accepted: Dec. 10. 2022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의 구성에 관한 조사 분석

박종후

목 차

1. 머리말
2. 일본 교육 제도의 개관 및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현황
3.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의 구성 현황
 - 3.1 한국어 교원 구성의 전체 현황
 - 3.2 과정별 한국어 교원의 인원수 분포
4. 맺음말

1. 머리말

본 논문은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¹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구성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 및 연구자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어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². 하지만 현대적

1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를 ‘조선어’, ‘한국·조선어’, ‘코리아어’, ‘한글(어)’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조선어’라는 명칭이 주류였고,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일(北日) 관계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본의 대학 등에서도 ‘한국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2 문헌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기술은 『속일본기(續日本記)』(761)의 것으로, 미노(美濃)와 무사시(武藏) 지역의 소년 20인이 신라어를 배웠다고 한다.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日本: 不二出版.

의미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³. 이는 이른바 한류(韓流) 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10년 정도 일본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⁴ 단적인 예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285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던 데 비해 2007년에는 430개 대학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수는 2014년에 474개교, 그리고 2020년에는 453개교 등 정체 또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일본의 한국어교육은 급격한 양적 팽창의 시기를 지나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이제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⁵

외국어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교사와 교재, 학습자 등을 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목표 언어의 현지 교육이 아닌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 내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에서는 한국어 교재나 학습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왔을 뿐 한국어 교원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일본의 중등교육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과 관련한 논의나 교원 재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간간이 이루어져 왔지만 한국어 교원 구성의 전체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나 파악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⁶

일본의 조선어교육학회(朝鮮語教育学会) 내 한국어교육 현황 조사 분과회에서는 2020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한국학 및 한국어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의 여러 항목 가운데에는 일본 내 한국어 교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⁷, 본 논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본 내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의

3 일본 내 대학에서 비전공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대학 수를 처음으로 조사한 것은 大村(1974, 1984)인데, 이 조사에 따르면 1977년에는 30개교, 1984년에는 42개교 대학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4 박중후(2014). “일본 대학에서 비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 조사”, *언어와 문화* 10(3), 119-139. ; 오대환(2010).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이해”, *국어학* 57, 204-226.

5 오대환(2011). 앞의 논문, 211.

6 오문경·이경수·문희진(2020).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 연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日本近代学研究* 68, 35-54.

7 설문 항목의 일람은 가장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Q6>가 한국어 교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 외 항목의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필자가 일원으로 참가한 조선어교육학회 내 한국어교육 현황 조사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⁸.

2. 일본 교육 제도의 개관 및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현황⁹

자기 나름의 한국어교육 전통이 오래된 일본의 경우 1984년부터 공영방송인 NHK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방송하는 등 일반인들의 한국어교육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한국어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도화된 학교 교육과 일반인 위주의 사설 교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 본고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경우 전모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에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일본의 제도화된 학교 교육, 특히 4년제 대학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일본의 교육 정규 제도 내 학교 체계는 <그림1>과 같다. (단, 기관 명칭은 한국과 일본에서 직역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한자 표기를 그대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그 명칭으로 삼기로 한다.)

분과회의 논의 참조. 이 보고서는 조선어교육학회 홈페이지(<http://jakle.sakura.ne.j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8 본래 설문지에서는 일본 내 각 교육 기관 전체의 한국어 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결과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 밖의 조사 대상이었던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얻은 응답수가 너무 적기도 하고 일본 전체의 한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도 하여 제외했다.

9 제2장의 내용은 조선어교육학회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취사해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조선어교육학회 (2021).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최종 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ci.go.kr

했다. 2019년에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 및 전문직단기대학이라는 높은 전문성을 키우는 새로운 종류의 학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한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특별지원학교에서도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학습 환경 및 조건이 다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조사에서는 <그림1>의 굵은 틀 안, 즉 4년제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의 6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들 6종의 학교 리스트를 수집하고, 거기에 등재된 모든 학교의 교육 과정과 수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해당 학교에 한국어 과목이 있는지를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학교의 수와, 그 가운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제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리라 추정되어 조사를 의뢰한 학교의 수를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일본 내 전체 학교 수 및 한국어교육 실시 학교 수

	전 학교 수	한국어교육 실시 학교 수	비율(%)
4년제 대학	795개교	453개교	57.0%
단기대학	323개교	82개교	25.4%
전문학교	2779개교	13개교	0.5%
고등전문학교	57개교	13개교	22.8%
고등학교	4874개교	286개교	5.9%
중등교육학교	55개교	3개교	5.5%
전체 조사 대상 학교 수		850개교	100%

위의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4년제 대학이 453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가 286개교였다. 하지만 비율로 따져 보면 대학이 전체의 57%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는 5.9%에 지나지 않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 과목이 필수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판단된다.

한편, 단기대학은 82개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수적으로는 적으나 전체의 25.4%, 즉, 4개교 당 1곳 정도의 비율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고등전문학교는

원래 전체 학교 수가 적는데다가 이공계 전문 교육기관이어서 한국어교육과 거리가 있을 것 같았으나 22.8%로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공업, 유통, 운수 등의 산업계에서도 한국과의 인적 교류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학교는 세분화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교육기관이어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의 수도 비율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본 내 교육 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어교육이 일본 내에서 양적으로 발전해 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3.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의 구성 현황

3.1절에서는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현황을 근무 형태(상근/비상근)와 모어(일본어/한국어/그 외¹⁰)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한편, 조선어교육학회의 2020년 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의 교원 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3.2절에서는 상근 교원과 비상근 교원의 인원수를 교양·강화·전공¹¹이라고 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의 유형과 모어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3.1 한국어 교원 구성의 전체 현황

3.1.1 상근 교원의 경우

먼저 일본의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근 교원의 전체 구성 현황을 살펴보자. 조선어교육학회의 2020년 조사에서는 모두 123개의 응답을 받았다. 먼저 이들

10 여기서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는 이른바 ‘재일 코리안’을 가리키는 경우를 상정했다. ‘재일 코리안’의 경우, 가정환경 및 성장 환경에 따라 모어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국어나 일본어 모어 화자로 구분하지 않고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로 따로 설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3.1.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조사됐다.

11 2020년 조사에서 상정하고 있는 일본의 대학에서 ‘교양’ 과정이란 주1~2회 정도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학에 따라 ‘교양 외국어’, ‘제2외국어’, ‘초수외국어(初修外國語)’ 등의 과목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외국어’ 등으로 불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 ‘강화’ 과정이란, 한국어나 한국학 이외의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 3~4회 정도의 강도 높은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전공도 이에 포함시킨다. 한편, ‘전공’ 과정이란, 학과·코스·전공 명칭에 ‘한국’, ‘조선’, ‘코리아’, ‘동아시아’ 등 한국어나 한국학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학 또는 프로그램 전체의 한국어 과목 담당 교원의 부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일본 대학의 한국어 과목 담당 상근 교원의 부임 현황(1)

	상근 교원 없음	상근 교원 있음				계
		한일 언어 화자 모두 있음	일본어 모어 화자만 있음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음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만 있음	
교양	34	16	18	26	2	96
강화	3	5	2	2	0	12
전공	0	11	3	1	0	15
전체	37	32	23	29	2	123

위의 <표2>는 일본의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상근 교원의 부임 현황을 모어별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상근 교원이란, 이른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전임교원을 가리킨다. 엄밀하게는 정년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을 받은 123개 대학 또는 프로그램¹² 가운데 상근 교원이 없는 경우는 37개로 전체의 30.1%였다. 바꿔 말하자면, 전체 프로그램 중 약 70% 정도는 모어와 상관없이 상근 교원이 부임해 있다는 것이다. 몇 안 되는 선행 연구 중 하나인 국제문화포럼(2005)의 조사 결과에서 정년 보장의 상근 교원이 없는 비율이 67.8%, 계약직 상근 교원이 없는 비율이 76.0%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난 15년 사이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상근 교원의 수도 상당히 늘었음을 보여 준다¹³.

한편, 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32개(26.0%), 일본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는 23개(18.7%),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는 29개(23.6%), 그 외 언어 모어 화자 이 경우 2개(1.6%)로 조사됐다.

12 학교에 따라 교양과 강화와 전공의 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각 과정이 하나씩만, 아니면 두 개가 중복되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면밀하게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 교양과 강화와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수치를 제시할 때는 대학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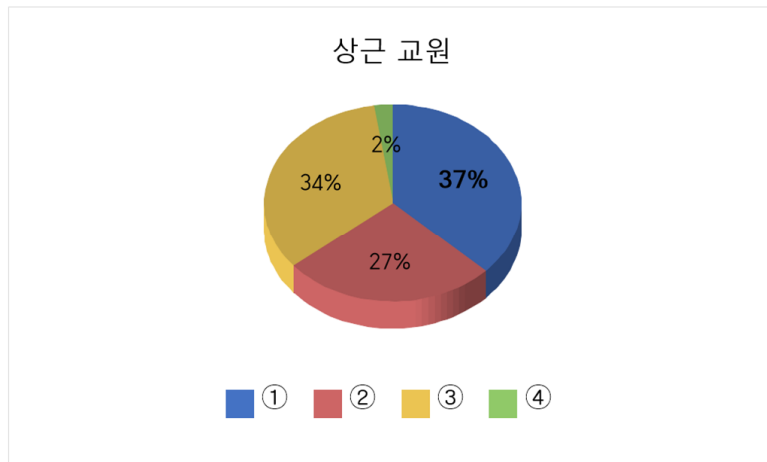
13 물론 이번 조사에서는 정년 보장의 상근 교원과 계약직 상근 교원의 구분 없이 단순히 상근 교원의 수만을 물었기 때문에, 국제문화포럼의 결과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두 조사의 결과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특기해 둘 만하다. 國際文化フォーラム(2005). *日本の学校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 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 日本: 國際文化フォーラム.

이 결과를 상근 교원이 있는 86개 대학 또는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일본 대학의 한국어 과목 담당 상근 교원의 부임 현황(2)

분류	대학 및 프로그램 수
①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있음	32(37.2%)
② 일본어 모어 화자만 있음	23(26.7%)
③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음	29(33.7%)
④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만 있음	2(2.3%)
합계	86(100%)

<그림2> 일본 대학의 한국어 과목 담당 상근 교원의 부임 현황(2)



위의 <표3>과 <그림2>는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상근 교원이 있다고 응답한 86개 대학 또는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이 가운데 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부임해 있는 경우(①)가 32개(37.2%)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③)가 29개(33.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둘을 합치면 61개(70.1%)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상근 교원이 있는 경우의 2/3를 약간 넘는 곳에 한국어 모어 화자가 부임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화자만 있는 경우는 23개(26.7%),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가 2개(2.3%)였다.

3.1.2 비상근 교원의 경우

다음으로 비상근 교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표4> 일본 대학의 한국어 과목 담당 비상근 교원의 부임 현황(1)

	비상근 교원 없음	비상근 교원 있음				계
		한일 언어 화자 모두 있음	일본어 모어 화자만 있음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음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만 있음	
교양	6	39	7	43	1	96
강화	0	6	0	6	0	12
전공	0	12	0	3	0	15
전체	6	57	7	52	1	123

위의 <표4>는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비상근 교원의 부임 현황을 모어별로 분석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말하는 비상근 교원이란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간강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을 해 준 123개 학교 및 프로그램 가운데 비상근 교원이 없는 경우는 교양 과정의 6개(4.9%)뿐이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비상근 강사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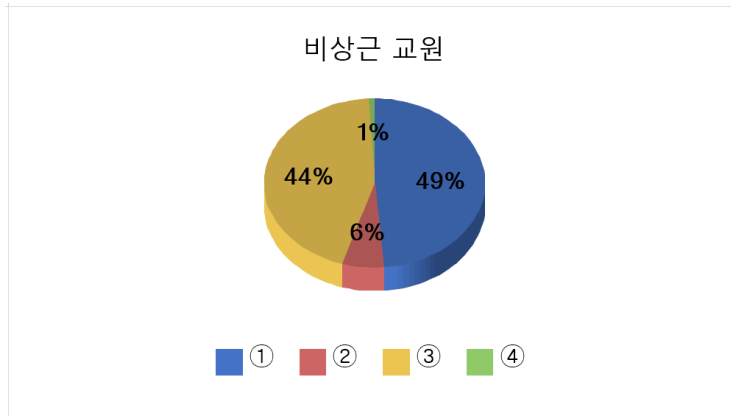
한편, 비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7개(46.3%), 일본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는 7개(5.7%),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는 52개(42.3%), 그 외 언어 모어 화자 이 경우 1개(0.6%)로 조사됐다.

비상근 교원이 있는 117개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이 결과를 다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일본 대학의 한국어 과목 담당 비상근 교원의 현황(2)

모어별 분류	학교 및 프로그램 수
①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있음	57(48.7%)
② 일본어 모어 화자만 있음	7(6.0%)
③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음	52(44.4%)
④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만 있음	1(0.9%)
합계	117(100%)

<그림3> 일본 대학의 한국어 과목 담당 비상근 교원의 현황(2)



위의 <표5>와 <그림3>은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비상근 교원이 있다고 응답한 117개 대학 또는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이 가운데 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있는 경우(①)가 57개(48.7%)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③)가 52개(44.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둘을 합치면 109개(93.2%)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비상근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화자만 있는 경우는 7개(6.0%),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만 있는 경우가 1개(0.9%)였다. 일본어 모어 화자는 모두 64곳(54.8%)에서 비상근 교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38.4퍼센트 포인트나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1.3 근무 형태별 비교

위의 조사 결과를 근무 형태별로 다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일본의 대학 내 한국어 과목 담당 교원의 근무 형태별 분포

	상근	비상근
① 교원 없음	37(30.1%)	6(4.9%)
② 양 언어 모어 화자 모두 있음	32(26.0%)	57(46.3%)
③ 일본어 모어 화자만 있음	23(18.7%)	7(5.7%)
④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음	29(23.6%)	52(42.3%)
⑤ 그 외 언어 화자만 있음	2(1.6%)	1(0.8%)
계	123(100%)	123(100%)

위의 <표6>은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현황을 상근과 비상근이라고 하는 근무 형태별로 분석한 것이다. 전체 123개의 응답 가운데 비상근 교원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4.9%에 불과했지만 상근 교원의 경우는 30.1%에 달했다. 상근 교원의 경우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비슷한 비율로 부임해 있었지만, 비상근 교원의 경우 일본어 모어 화자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율이 높았다. 아무래도 이는 현재 일본의 대학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반면, 일본의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어 모어 화자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교원 공급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3.2 과정별 한국어 교원의 인원수 분포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양과 강화와 전공 과정에 따라 수업 시수와 내용에 큰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 셋을 구분하여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다.¹⁴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모두 96개교에서 응답을 받았다. 또 강화 과정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12개교, 전공 과정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15개교에서 응답을 받았다.

3.2.1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표7>에서는 일본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 형태와 모어를 제시한다. 근무 형태와 모어의 구성이 동일한 과정의 경우에는 그 개수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학교 수’란에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첫 행에 제시된 과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모어 화자가 3명, 한국어 모어 화자가 4명, 비상근 교원으로 일본어 화자가 4명, 한국어 모어 화자가 10명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대학 수는 1개교이라는 것이다.

14 학교에 따라서는 교양, 강화, 전공 과정을 모두 개설하고 있어 한 명의 교원이 모든 과정의 수업을 맡고 있어 중복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학교 내부의 세세한 사정까지는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무시하고 분석하였다.

<표7> 일본의 대학에서 교양 과정의 한국어 교원의 근무 형태 및 모어 구성

상근 교원 수			비상근 교원 수			학교 수
일본어	한국어	그 외	일본어	한국어	그 외	
3	4		4	10		1
3	2		11	20		1
3	1		6	9		1
3			5	20		1
	3		4	13		1
1	2		3	6		1
1	2		1	7		1
2	1		3	3		1
2	1		2	3		1
1	1		9	12		1
1	1		3	8		3
1	1		5	5		1
1	1		2	4		1
2			1	2		1
	2			2		2
2				1		1
	2			1		1
1	1		1	1		2
1			4	6		1
1			2	5		1
1			4	3		1
1			3	3		1
1				5		1
1				2		3
1			1			1
1				5		5
	1		2	13		1
	1		3	9		1
	1			6		1
	1		1	5		1
	1		1	4		1
	1		2	3		1
	1			3		2
	1		1	2		3
	1		1	1		2
	1			2		4
	1			1		1
		1		1		1
		1			1	1
35	36	2	85	206	1	56

비상근 교원 없는 학교

상근 교원 수		학교 수
일본어	한국어	
1	1	1
	2	1
1		1
	1	3
2	4	6

상근 교원 없는 학교

비상근 교원 수		학교 수
일본어	한국어	
4	5	1
	7	1
	4	3
1	3	2
1	2	1
	3	2
	2	4
1	1	3
	1	11
1		6
8	28	34

위의 <표7>에서는 교양 과정에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상근 교원과 비상근 교원이 모두 있는 경우(좌측의 표)와 둘 중 어느 한 쪽만 있는 경우(우측의 표)로 나누어 제시했다. 후자의 경우 다시 비상근 교원이 없는 경우(즉, 상근 교원만 있는 경우: 우-상측의 표)와 상근 교원이 없는 경우(즉, 비상근 교원만 있는 경우: 우-하측의 표)로 구분한다.

상근 교원과 비상근 교원이 모두 있는 대학은 39개의 유형에 모두 56개교로 조사됐다. 비상근 교원 없이 상근 교원만 있는 대학은 4개 유형에 6개교였고, 상근 교원 없이 비상근 교원만 있는 대학은 10개 유형에 34개교였다. 특히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비상근 교원이 20명이나 있는 학교가 2개교, 그 가운데 하나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비상근 교원도 11명이나 있어 비상근 교원이 모두 30명을 넘는 등, 비상근 교원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곳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그 외’ 언어를 모어로 하는 상근 교원은 2명(1명은 중국어라고 기입했음), 비상근 교원은 1명, 모두 3명이었다. 상근과 비상근을 불문하고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대학은 8개교,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대학은 34개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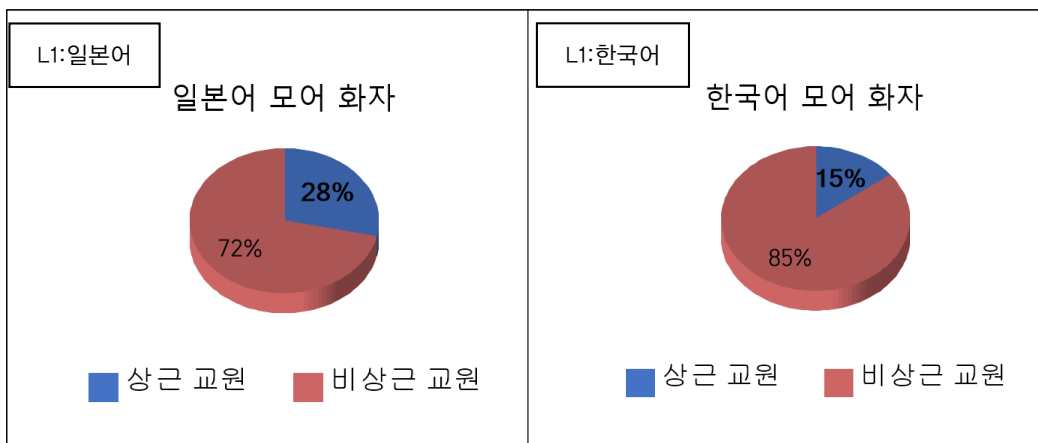
이를 모두 합쳐 교원의 수를 근무 형태와 모어별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8> 근무 형태 및 모어에 따른 한국어 교원 구성(교양 과정)

	일본어	한국어	그 외	합계
상근 교원	37명	40명	2명	79명
비상근 교원	93명	234명	1명	328명
합계	130명	274명	3명	407명

상근 교원으로 근무하는 일본어 모어 화자는 37명, 한국어 모어 화자는 40명,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는 2명이었다. 모어별 상근 교원의 수에서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절대적 수치 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비상근 교원의 경우에는 일본인 모어 화자가 93명인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가 274명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를 모어별 근무 형태로 다시 분석해 보면, 그림4와 같다.

<그림4> 모어별(L1) 근무 형태의 비율 차이(교양 과정)



일본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 130명의 한국어 교원 가운데 상근 교원이 37명(28.5%), 비상근 교원은 93명(71.5%)이었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 274명의 한국어 교원 가운데 상근 교원은 40명(14.6%), 비상근 교원은 234명(85.4%)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수치상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어 모어 화자 사이에 상근 교원의 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상대적 비율로 따지면 역시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상근 교원의 비율(日[日]28.5%: 韓[韓] 14.6%)이 높았다.

3.2.2 강화 과정과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표8>에서 먼저 일본 대학의 강화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 형태와 모어를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표10>에서 일본 대학의 전공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구성을 살펴본다. 앞서 교양 과정에서 살펴본 <표3>과 동일하게 근무 형태로는 상근 교원인지 비상근 교원인지, 모어로는 일본어 모어 화자인지 한국어 모어 화자인지, 그리고 그 외 언어 모어 화자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앞 절의 <표7>에서 살펴본 교양 과정과는 달리 근무 형태와 모어의 구성이 동일한 학교는 없었기 때문에 ‘학교 수’란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표8> 일본의 대학에서 강화 과정의 한국어 교원의 근무 형태 및 모어 구성

상근 교원 수		비상근 교원 수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3	2	6	3
2	1	2	3
1	2	3	6
1	1		4
1			4
1		1	2
1	1	2	1
	2		4
	1		3
		1	1
			2
			1
10	10	15	34

위의 <표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학에서 강화 과정은 12개교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상근 교원이 없는 대학은 3개교(25%)였다.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상근 교원으로 있는 대학은 5개교(41.7%), 일본어 모어 화자만 상근 교원으로 있는 대학은 2개교(16.7%), 한국어 모어 화자만 상근 교원으로 있는 대학도 2개교(16.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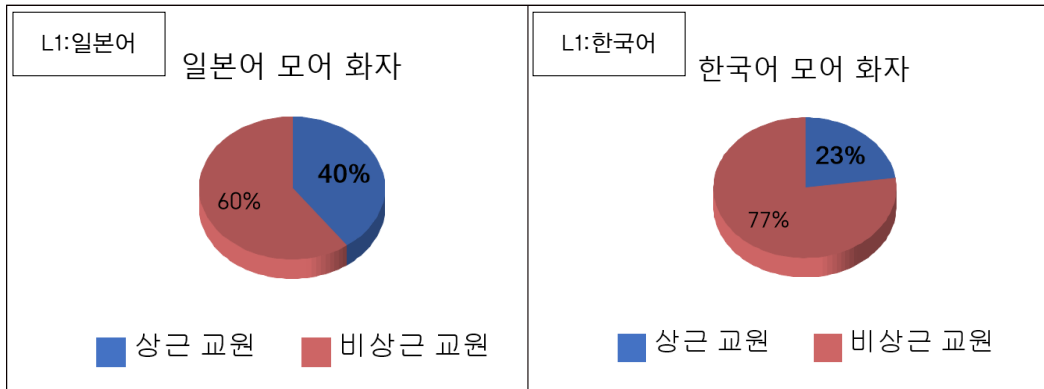
한편, 강화 과정에서 비상근 교원이 없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는데,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든 강화 과정의 대학에서 비상근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비상근 교원으로 모두 있는 대학은 6개교(50%),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만 있는 대학도 6개교(50%)였다. 이를 모두 합쳐 교원의 수를 근무 형태와 모어별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근무 형태 및 모어에 따른 한국어 교원 구성(강화 과정)

	일본어	한국어	그 외	합계
상근 교원	10명	10명	0명	20명
비상근 교원	15명	34명	0명	49명
합계	25명	44명	0명	69명

강화 과정의 대학에서 상근 교원으로 부임해 있는 일본어 모어 화자는 10명, 한국어 모어 화자도 10명, 그 외 언어 모어 화자는 0명이었다. 모어별 상근 교원의 수에서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수치상으로는 동일했다. 한편, 비상근 교원의 경우에는 일본인 모어 화자가 15명인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가 34명이었다. 이를 모어별 근무 형태로 다시 분석해 보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모어별(L1) 근무 형태의 비율 차이(강화 과정)



일본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 25명의 한국어 교원 가운데 상근 교원이 10명(40.0%), 비상근 교원은 15명(60.0%)이었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 44명의 한국어 교원 가운데 상근 교원은 10명(22.7%), 비상근 교원은 34명(77.3%)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수치상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어 모어 화자 사이에 상근 교원의 수는 동일했지만 상대적 비율로 따지면 역시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상근 교원의 비율(일40.0% : 한 22.7%)이 높았다.

다음으로 전공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15개교의 내용을 살펴 보자.

〈표10〉 일본의 대학에서 전공 과정의 한국어 교원의 근무 형태 및 모어 구성

상근 교원 수		비상근 교원 수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4	2	6	5
4	2	2	2
4	2	2	1
3	3	3	3
2			1
1	5	2	5
	3	4	13
1	3		4
1	3	1	2
1	2	1	1
1	2		1
1	1	3	5
1	1	1	2
1		2	6
1		1	6
26	29	28	57

위의 〈표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공 과정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15개의 대학에는 모두 상근 교원이 부임해 있었다. 또 강화 과정에서는 상근과 비상근을 불문하고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대학도 4곳(33.3%)이나 있었는데 전공 과정의 경우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물론 두 과정 모두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대학도 없었다. 이를 모두 합쳐 교원의 수를 근무 형태와 모어별로 나누어 다시 제시해 보면 아래의 〈표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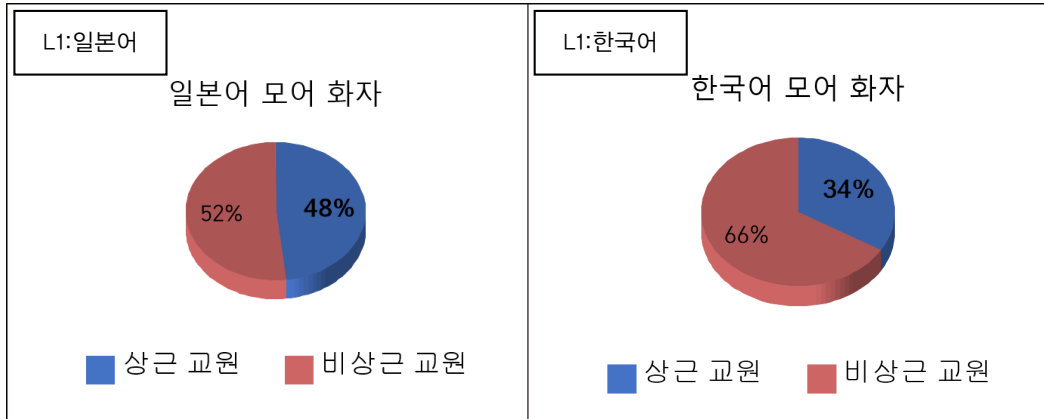
〈표11〉 근무 형태 및 모어에 따른 한국어 교원 구성(전공 과정)

	일본어	한국어	그 외	합계
상근 교원	26명	29명	0명	55명
비상근 교원	28명	57명	0명	85명
합계	54명	86명	0명	140명

전공 과정에서 상근 교원으로 부임해 있는 일본어 모어 화자는 26명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는 29명이었다. 모어별 상근 교원의 수에 있어서는 다른 과정들의 경우와 같이 절대적 수치로는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비상근 교원의 경우 일본어 모어 화자가 28명, 한국어 모어 화자가 57명으로 2배 정도 많았다. 이를 모어별 근무 형태로 다시 분석해 보면, <그림6>과 같다.

<그림6> 모어별 근무 형태의 비율 차이(전공 과정의 경우)



위의 <그림6>은 전공 과정에서 모어별 근무 형태의 비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 54명의 한국어 교원 가운데 상근 교원이 26명(48.1%), 비상근 교원은 28명(51.9%)으로 거의 비슷했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체 86명의 한국어 교원 가운데 상근 교원은 29명(33.7%), 비상근 교원은 57명(66.3%)이었다. 교양 과정이나 강화 과정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근 교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나, 일본어 모어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의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구성 현황을 근무 형태와 모어에 따라 분석해 봤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은 모두 453개교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2020년 조사에서 응답을 받아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 연구에서 123개 대학 및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일본의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온 일본 내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조사·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한국어 교원 구성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했는데, 이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록】 2020년도 한국어교육 현황조사 설문항목 일람

- Q1. 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대표자명 등(대부분 사전에 입력되어 있을 것이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 정보와 다른 부분만 수정하여 주십시오.)
- Q2. 응답자 정보: 응답자 명, 소속, 연락처 등(본 학회에서 응답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을 시에만 이용하겠습니다.)
- Q3.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 부서, 대상 학부 등
- Q4. 이수수속에 대하여: 프로그램 개시시기, 수강 언어 선택, 결정 수속 수강 조건 등
- Q5. 2020년도의 한국어교육 실시 상황: 한국어의 주당 수업 횟수, 수강자 수, 교재 등
- Q6. 한국어교육 담당교원에 대하여: 교원 수, 상근 교원의 이름·전문분야 등
- Q7. 한국학 관련 수업 및 연구에 대하여: 한국학 관련 수업, 대학원 과정 등
- Q8. 수료 후 진로에 대하여: 한국학 관련 유학 또는 진학 등
- Q9. 외부시험에 대하여: ‘한글’ 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등
- Q10. 한국 방문 및 한국 학교와의 교류에 대하여: 학교 간 교류, 상호 방문, 현지 연수의 유무 등
- Q11. 한국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대하여: 지난 5년 안에 실시한 한국 관련 이벤트 등
- Q12. 한국학 연구 센터 등에 대하여
- Q13. COVID-19의 영향에 대하여: 수강자 수, 수업 내용, 교류 사업 등의 변화 등

[References]

- Park, Jong-hoo (2014).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non-major in Japanese Universities," *The language and Culture* 10(3), 119-139.
- Oh, Dae-whan (2011).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57, 204-226.
- Oh, Moon-kyoung, Lee, kyung-soo & Moon, Hi-ji (2020). "A qualitative development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Focusing on obtaining Korean teacher qualifications,"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68, 35-54.
- Lee, Soon-yun (2018). "The recognition about Korean language of Japanese learners in the beginning level of Korean class at Japanese university," *Japanese Cultural Studies* 67, 257-275.
- 大村益夫 (1977). "大学における朝鮮語講座の現状," *季刊三千里* 12.
- 大村益夫 (1984). "大学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状," *季刊三千里* 38.
- 国際文化フォーラム (1999). *日本の高等学校における中国語教育の広がり: 韓国朝鮮語教育との比較で見る*, 東京: 国際文化フォーラム.
- 国際文化フォーラム (2005). *日本の学校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 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 東京: 国際文化フォーラム.
- 文部科学省総合教育政策局教育改革国際課 (2018). *平成29年度高等学校等における国際交流等の状況について*, 東京: 文部科学省総合教育政策局.
- 山田寛人 (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東京: 不二出版.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의 구성에 관한 조사 분석

박종후

일본 독협대학(獨協大學) 특임 준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2020년 조선어교육학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형태별(상근/비상근) 구성과 모어별(일본어 모어 화자/한국어 모어 화자/그 외 언어 모어 화자) 구성 현황을 분석한다. 먼저 전체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서 상근 교원과 비상근 교원의 부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어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후 교양과 강화와 전공 과정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정에서 상근 교원과 비상근 교원의 수를 다시 모어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 국제문화포럼(2005)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일본 대학 내 상근 교원의 자리가 많아졌고, 인원 수도 많이 늘었다.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사이에 상근 교원의 수는 수치상 큰 차이가 없지만, 비율로는 일본어 모어 화자가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비상근 교원의 경우에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핵심어 일본 대학의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원, 상근 교원, 비상근 교원, 모어별 구성

이 논문은 2022년 11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